

증시 호조에 퇴직연금도 호황... '비보장형' 병행하면 유리

금감원, 1분기 말 42개 사업자
DC형 1년 수익률 평균 13.98%
원리금보장 상품은 2.96% 그쳐
“비보장형, 장기 투자시 성과 커”

코스피지수가 '9000피'를 목전에 둔 가운데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증시 호조에 힘입어 저조했던 원리금비보장형(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크게 상승했고, 주식 투자 경험이 없어도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하며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서다.

17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 42개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1년 운용 수익률 평균은 13.98%로 집계됐다. 5년 수익률 평균인 4.33%의 3배를 넘겼다.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 평균은 2.96%에 그쳤지만, 비보장형 수익률은 25%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피고 있다. /뉴스시스

금)의 1년 운용 수익률의 평균은 12.84%로 집계됐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2.84%에 불과했지만, 비보장형 상품의 연간 수익률은 22.84%에 달했다. 반면, 확정기여형(DB)형의 비보장형상품 운용 수익률 평균은 8.96%에 불과했다. DB형은 사업주가 운용방식을 지정하고 일정액을 분배하는 방식인 만큼, 고위험

상품의 선택률이 낮았던 영향이다.

최근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급등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퇴직연금은 특정 주식에 직접투자는 불가하지만, 주식형펀드나 다수의 주식을 혼합해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등 신탁상

품에 투자할 수 있다. 국내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를 추종하는 비보장형상품의 수익률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가입자라면 위험도와 투자성향에 따라 '디폴트옵션'도 고려할 수 있다. 각 운용사가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을 혼합해 구성하는 디폴트옵션은 원금을 보장하는 저위험 상품부터 위험자산에 적극 투자하는 고위험상품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한번 지정하면 재지정할 필요 없이 빈번투자 되는 것 또한 주요한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시 적정 수준의 비보장형 상품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은행권의 예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도 낮게 형성된 만큼, 노후자산 증식을 위한 위험자산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의 한 자산운용(WM) 담당자는 “은행권 금리 하락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도 하락하면서, 노후자산 증식을 위한 원리금비보장형 선택이 필요해졌다”라

며 “비보장형 상품은 기대수익률이 높고, 단기간 내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장기 투자 시에는 보장형 상품보다 높은 성과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퇴직연금 운용 시에는 과세에 유의해야 한다. 55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높은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퇴사나 이직 등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개인형IRP로 이전되는데, 개인형IRP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0~50%의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DC형을 퇴직연금을 적극 운용하는 경우 개인형IRP의 추가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개인형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의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형IRP를 최대로 납입한다면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148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카드사 '포용금융'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

삼성, 최대 5000만원 최저이자 4.90%
현대, 3년만에 재개... 최저금리 4.5%

카드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추는 동시에 카드론 외 주요 수익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신한·KB국민·현대·우리카드 등 주요 전업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가장 최근 소호 대출 상품을 출시한 곳은 삼성카드다. 삼성카드는 최대 금액 5000만원 한도, 연 최저 4.90% 이자율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선보였다. 최대 대출 기간은 60개월이다.

현대카드도 앞서 중단했던 개인사업자대출을 3년 만에 재개했다. 금리는 고정금리로 4.5~19.5%다.

카드사들의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을 확대하는 배경은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때문이다.



Chat gpt가 생성한 카드사들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출시 관련 이미지.

현대카드 관계자는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와 함께 은행 대출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상품 영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수익 다각화 측면도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카드론에 의존해 왔던 카드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섰다. 실제 개인사업자 대출은 카드론과 달리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규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일부 카드사는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

하나카드는 개인사업자대출 상품과 관련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 내부 검토를 진행했으나 출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 역시 현재 사업자대출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대출 상품은 없다”며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맞춰 출시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건전성 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다른 대출 상품보다 연체율이 높아 대출 심사 강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다른 대출 상품 보다 대출 심사 관련 인력 배치 등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출시하려면 대출 심사 인력이 있어야 하고 상품 개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대출과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금융사 매각채권 책임 확대 '불법추심 차단'

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앞으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연체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추심과 채무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이후 양수인의 채권관리 및 추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채권 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양수인에게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시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추심·매각 가이드라인은 개정 절차를 거쳐 7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완료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인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 중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해 정책효과를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BNK부산은행 '우리동네 기후쉼터' 운영

BNK부산은행은 부산광역시와 '우리동네 기후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름 및 겨울철 '기후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폭염과 한파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쉼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BNK부산은행은 기존 하절기 '무더위 쉼터'를 '우리동네 기후쉼터'로 확대 개편하며, 영업점을 시민들을 위한 쉼터 공간으로 제공한다. 인근 지역민들은 여름철 폭염뿐 아니라 겨울철 한파에도 가까운 BNK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잠시 쉬어갈 수 있게 된다.

/안승진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양천구 목동에 개관한 씨밋 목동 라운지의 상담공간 '유담'의 전경. /대우건설

대우건설, 30조 목동 재건축 수주 도전장

총 5만세대... 8·11·14단지 수주전
고객경험 공간 '씨밋 목동 라운지'
“하이엔드 주거의 가치와 비전 공유”

5만 세대 신축으로 탈바꿈하는 목동 재건축 수주전이 본격화됐다. 재건축 사업 규모만도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우건설은 8·11·14단지에 도전장을 던졌다.

대우건설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씨밋(SUMMIT)'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고객 경험 공간 '씨밋 목동 라운지'를 개관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씨밋 브랜드의 전면적 리뉴얼 이후 처음 선보이는 브랜드 라운지다.

형남호 대우건설 강서영업지사 소장은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목동에서 대우건설이 제안하는 하이엔드 주거의 가치와 비전을 고객과 공유하고 점점을 확대하기 위해 라운지를 마련했다”며 “기존 홍보관과 달리 대우건설의 스토리를 전달하고 목동주민과 교류·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라운지는 한국 전통적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특히 선비와 문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시와 음악을 나누며 사유와 담론을 교류하던 문화적 장소인 '야회(雅懷) 콘셉트를 적용했다.

라운지는 ▲고객을 맞이하는 현관 '접빈'과 품격 있는 리셉션 '영빈' ▲대면형 주방과 장식 선반을 중심으로 문화적 깊

이를 더하는 취향 공유 공간 '서거' ▲최신 기술의 시청각 자료를 통해 생각을 공유하는 담론 공간 '청음' ▲독립된 개별실에서 깊이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심화상담 공간 '유담' 등으로 구성됐다.

목동 재건축은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완료될 경우 세대수만도 4만7409세대에 달한다.

대우건설은 라운지를 전초기지로 삼아 적극 수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단 상대적으로 사업진행이 빠른 신정동에서 8, 11, 14단지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제시한 목동 씨밋의 경쟁력은 ▲초고층 설계특화 ▲외관 특화 ▲공용부/조경 특화 ▲커뮤니티 특화 ▲단위세대 특화 ▲주차 특화 등이다.

형 소장은 “14개 단지가 한꺼번에 재건축을 진행해 서로 랜드마크 단기가 되기 위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관 특화에도 공을 들일 것”이라며 “최고 49층 설계에 맞춰 초고층 설계 특화와 함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글로벌 구조설계사와도 협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커뮤니티가 아파트의 시세를 좌우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 만큼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현재 0.4~0.8대에 불과한 평균 주차대수 역시 세대당 2대 이상을 확보토록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업 조건은 단지별로 아직 고심 중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